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②

淨心恒樂善因 染心常思惡業  
 正心恒樂善因 染心常思惡業  
 若眞如自覺 覺不受所染則稱之爲聖  
 若眞如自覺 覺不受所染則稱之爲聖  
 遠能遠離諸苦 盡淨染樂 若眞如自覺  
 遠能遠離諸苦 盡淨染樂 若眞如自覺  
 受其纏覆則名之爲凡 於是  
 受其纏覆則名之爲凡 於是  
 沈淪三界 受種種苦 何以故  
 沈淪三界 受種種苦 何以故  
 由彼染心 障眞如體故 十地經云  
 由彼染心 障眞如體故 十地經云  
 有金剛佛性 猶如日輪  
 有金剛佛性 猶如日輪  
 衆生身中 有金剛佛性 猶如日輪  
 衆生身中 有金剛佛性 猶如日輪  
 體明圓滿 廣大無邊 只爲五陰  
 體明圓滿 廣大無邊 只爲五陰  
 所覆 猶如瓶內燈光 不能顯現  
 所覆 猶如瓶內燈光 不能顯現  
 又經云 一切衆生 皆有佛性  
 又經云 一切衆生 皆有佛性  
 無明覆故 不得解脫 佛性自覺也  
 無明覆故 不得解脫 佛性自覺也  
 但能自覺 覺智明了 離其所覆  
 但能自覺 覺智明了 離其所覆  
 則名解脫 故知一切諸善  
 則名解脫 故知一切諸善  
 以覺爲根 因其覺根

성이란 깨침이다. 스스로 깨치고 그 깨친 지혜가 밝아서 덮었던 것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善)은 깨침으로 뿌리를 삼고, 그 깨침의 뿌리로 인해 모든 공덕의 나무가 무성하여 열반의 열매가 여문다.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

又問曰 上說眞如佛性 無門無路 豈非無門 一切功德 因覺爲根 一切功德 因覺爲根 一切功德 因覺爲根 一切功德 因覺爲根

또 물었다. "위에서 말씀하신 진여불성(眞如佛性)의 모든 공덕은 깨침이 뿌리가 된 것임은 알았으나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은 무엇을 뿌리로 삼는 것입니까?"

答曰 無明之心 豈有八萬四千煩惱情欲 豈有八萬四千煩惱情欲 豈有八萬四千煩惱情欲 豈有八萬四千煩惱情欲

깨끗한 마음은 착한 인연 즐기고

물든 마음은 항상 악한 업 생각

이각위근 인가각근 遠能顯現諸功德樹 涅盤之業 遠能顯現諸功德樹 涅盤之業 遠能顯現諸功德樹 涅盤之業

皆因三毒 以爲根本 其三毒者 皆因三毒 以爲根本 其三毒者 皆因三毒 以爲根本 其三毒者 皆因三毒 以爲根本

깨끗한 마음은 항상 착한 인연을 즐기고, 물든 마음은 항상 악한 업을 생각한다. 만약 진여의 마음을 깨쳐 그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음을 깨달으면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그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물든 마음을 따라 악한 짓을 하여 그 업에 얽히고 얽히게 되면 이를 범부라 한다. 그는 항상 삼계(三界)에 빠져 갖가지 괴로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물든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여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십지경>에 말하기를 '중생의 몸 가운데 금강석처럼 굳은 불성이 있어 해와 같이 밝고 원만하며 광대무변하지만, 단지 오음(五陰)의 검은 구름에 덮여 마치 항아리 속의 불빛이 밖으로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였고 또 <열반경>에 말하기를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으나 무명에 덮여서 해탈하지 못한다.' 하였다. 불

대답했다. "무명의 마음에는 팔만사천의 번뇌와 정욕이 있어 갠지스강의 모래 수효만큼이나 악한 것들이 한량 없으나 요약해서 말한다면 삼독이 근본이다. 삼독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인데 이 삼독심에는 저절로 모든 악이 들어 있다. 마치 큰 나무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나 잎은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삼독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나무의 비유보다 백천만배나 더하여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김원각(사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고봉스님

해인사 선덕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호국 불교의 전통이 되살아나곤 했다. 불교가 국교였던 신라, 고려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억울송유(義勇)의 조선시대에도 서산·시영 대사 같은 스님들이 승군을 조직해 나라를 도탄에서 구하는데 앞장섰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한번 나라를 위해 스러져간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면서 호국불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12~14일 분단 50년만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의 기운이 새롭게 켜지는 이때 호국불교의 의미와 정

신에 대해 큰스님의 말씀을 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봉스님이 주석하시는 해인사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 호국불교의 표상과도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오늘도 화엄법문을 토해내고 있는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듯하다. 방밖에서는 까치들이 싱그럽게 지저귀고 있는 가운데 기자를 따뜻하게 맞아 주신 고봉스님은 동인(童顏)의 미소를 띠시며 '마음을 비우고 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호국불교로 가는 바른 길임을 강조하셨다.

“내 주장부터 먼저 버리자”

—우리나라에는 호국불교의 전통이 면면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우리나라의 국가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고 도선스님은 왕권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역사의 대전환기에 이러한 스님들이 계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독특한 현상의 원인 내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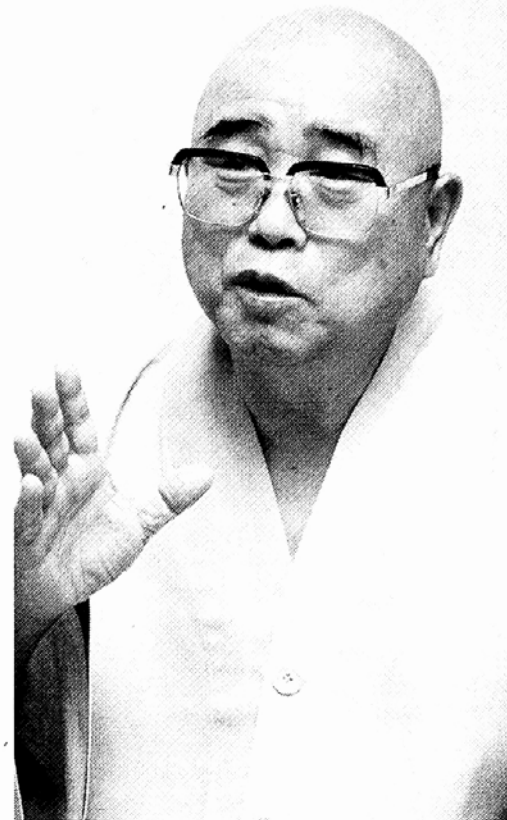
▲불교경전이나 <한단고기(=한단고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고대사서를 보면 그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제석천에 석제환인이라는 임금이 있어 불교를 수호하고 널리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단고기>에 보면 7명의 환인과 18명의 환웅 그리고 47명의 단군이 있어 대를 이어 고 조선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7명의 환인 중에 석제환인이 있어 불경에 나오는 석제환인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건국에서부터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웅이 중생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가져왔다는 삼부인(三符印)에 보면 교화이제로 삼통광명(性通光明)과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경성성불(見性成佛)과 요익중생(饒益衆生)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군의 단(檀)이란 말에는 배 풀고 산다는 의미가 있으며 보시바라미를 원음으로 단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단군시대의 수련법을 국선도라고 하는데 신라시대에는 불교와 접목되어 화랑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선도의 단전호흡법은 불교의 수식관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습니. 불교에서는 수식관에 부정한 인연관 재비관 계분별관을 더해 오정심관(五淨心觀)이라 합니다.

—12일 분단50년만에 첫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차례나 무산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새천년에 들어서자마자 성사됨으로써 통일조국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조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불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반야사상, 공(空)사상으로 되돌아가

- 1931년 출생
- 18세 때 해인사 입산
- 영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 인곡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선원장 역임
- 조계종 교무부장·중앙총회 의원 역임
- 현재 해인사 극락전에 주석



아합니다. 우리 앞에 5개의 창안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에 하나씩 있는데 가운데 것이 서쪽 것에 대해서는 서쪽에 위치하지만 동쪽 것에 대해서는 서쪽에 위치합니다. 자기 위치란 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위치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내세우지 말고 무아(無我)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더러 버려라 하기전에 내가 먼저 내 주장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족성을 회복해야

니까? 환부역조(換父逆祖)하는데 나라가 잘릴 리 있겠습니까? 민족성과 역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호국불교입니다.

—임진왜란때에는 스님들도 창과 칼을 들고 분연히 일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불살생의 계를 범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이같은 논의는 오늘날 참여 대승불교의 논쟁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수행에만 전념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사회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 경계점이 자못 궁금합니다.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계는 개차법(開遮法)으로 지켜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가 나뭇꾼을 지나쳐 갔습니다. 잠시후 사냥꾼이 나타나서 나뭇꾼에게 사슴이 도망친 곳을 묻자 나뭇꾼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나뭇꾼은 비록 불쌍하게 계를 범했지만 살생계를 지켰으니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경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는 열고 다른 하나는 막은 것이어서 개차법이라 합니다.

이러한 개차법으로 스님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일어서 있습니다. 의로운 다수의 생명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롭지 못한 자들을 징벌하는데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호국불교에 화두선(간화선)과 대승불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간에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에서 개차법을 얘기했습니다만 불교는 엄격하면서도 폭이 넓습니다. 스님들이 창과 칼을 든 것은 대승불교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부처님 재세시에 두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시봉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출타하자 여인은 다른 수행자를 유혹해서 파계시켰습니다. 수행자가 돌아와보니 도반이 여인때문에 파계한지라 헛김에 칼로 그 여인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음행과 살인을 저지른 두 수행자는 곧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수행자는 부처님 제자중 계율제일로 소문난 우비리존자를 찾아가 참회할 길을 물었으나 우비리존자는 '참회가 불

문경새재

#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당신, 이 아름다운 삶을 마주한 적 있는가!

다시 산중(山中)으로 돌아가며

가을이 한창 산문을 들들미던 어느날,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고산 큰스님은 노구를 탁마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짧은 기자회견만으로 조계사를 떠나셨습니다.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피할수 없었던 종단분규로 인해 또 한 번의 큰 어련을 맞았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우리는 또 어느 세월, 어떤 스승을 만나 이 풍진 세상의 화두를 찾아낼 수 있을런지요.

산, 그보다 푸르고 깊은 마음을 담아

당신은 버리고 떠남으로서 찾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모릅니다. 당신이 산중으로 돌아가시던 그날, 유난히 커보이던 대웅전 부처님과 환승식에 모인 사람들은 더이상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가을비가 당신의 발걸음만 가볍게 적셔줄 뿐, 그날 이후로 당신을 마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 책에는 오로지 수행자라는 외길로 일생을 살아온 고산 큰스님의 절박한 삶과 부처님 이야기를 통한 잔잔한 가르침이 이해롭고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쉽게 큰스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삶을 위해 서려면 더욱 큰스님이 옥필로 남기신 이 고마운 법문을 기대하시기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가격 7,500원 / 국판/260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전국 서점의 뜻 있는 주석스님들과 불자분들의 많은 법보시를 기다립니다.

• 도서편역의 수익금 중 일부는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도서출판 문경새재로 연락을 주시면, 이 범 불국토를 염원하시는 큰스님의 뜻에 따라 할인영수증 발행합니다.